

주변에서 찾은 우리 색동의 기원과 감성에 대한 고찰

The Origin and Emotion of Saekdong in Our Surroundings

김지수* · 나영주**
Jisu Kim* · Youngjoo Na**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Inha University

Abstract

Saekdong is a unique Korean fabric that has been used since ancient times, and it is woven with the plain or satin weave so that vertical stripes appear by various colored warp threads of equal spacing. Saekdong means pleasure, joy, serenity, heavenly blessing, spirituality, wind, and abundance, expressing the optimistic and positive sentiment of Korea's forefathers. This study investigated how ancient Saekdong occurred with meanings. As a research method, this study used literature review and surfing newspapers and photographs, museum and internet search, even from other fields such as earthenware, bronze, and traditional dance. We collected Saekdong and the lifestyles of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investigated the Asuka culture of Japan, and the tomb murals of Takamatsu-Chong, which are Baekje and Goguryeo settlement area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expresses happy occasion, pleasure, and joy, and expresses a desire for good things to be repeated and lasting. Second, it symbolizes simple beauty, order, equality and harmony of many tribes. Third, Saekdong is life and power which represent a sacred, heavenly, mysterious bird. Fourth, it symbolizes abundance and wealth, rain, wind or fields. Finally, this study showed the brilliance and pride of Korean hanbok through Saekdong.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ymbolism and inherent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Saekdong and to show the unique value and spiritual heritage of the Korean people.

Key words: Saekdong, Silk Geum, Go-Joseon, Goguryeo, Tomb Wall Painting

요약

색동은 고대부터 사용해 온 우리 고유 원단이며 다양한 색사를 경사로 사용하여 동일간격 세로 줄무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도록 평직, 수자직으로 직조한 것이다. 본 연구는 고대의 색동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논문 및 단행본, 학술지 등의 문헌자료, 박물관 자료, 신문과 사진 자료, 인터넷 검색 등을 이용하였으며 도자기, 금속공예, 무용 등 복합예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 고대문화의 연결고리를 고찰하였다. 또 조선족 자료와 일본의 아스카 문화 및 다카마스층의 고분벽화를 통해서 고구려, 백제의 흔적을 살펴 보았다. 색동은 즐거움, 기쁨, 경사, 하늘의 축복, 신령함, 바람, 풍작 등을 의미하며 우리 선조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색동으로 나라와 가정의 경사와 즐거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였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NRF2016-R1D1A 1B01015336).

† 교신저자 : 나영주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E-mail : youngjoo@inha.ac.kr

TEL : 032-860-8136

FAX : 032-865-8130

으며 좋은 일이 반복되고 지속되길 기원하는 마음을 나타내었다. 둘째, 단아한 아름다움을 통해 질서, 평등, 조화를 상징한다. 셋째, 색동은 생명, 힘이며 신성한 존재로서 숭상된 하늘에 속한 신비스러운 새를 나타낸다. 넷째, 부와 풍요로서 비, 바람 또는 밭이랑을 상징한다. 조선족과 일본에 남아 있는 우리 한복과 색동의 경쾌하고 선명한 색사용을 통해 우리 선조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엿볼 수 있었다.

주제어: 색동, 금, 고조선, 고구려, 고분 벽화

1. 서론

의복은 민족성과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민족을 상징하는 의복 문화는 전통 생활양식과 함께 민족의 고유한 정신세계,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의복 문화는 시대적 환경이나 조건들에 의해 변형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존되고 남아있는 요소도 분명히 있기 마련이다. 우리 민족은 백의(白衣)를 즐겨 입어 오래전부터 ‘백의 민족(白衣民族)’이라고 불리웠다. 이때 백의는 흰옷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색으로서 바탕색과 동일색으로 무늬가 들어있는 옷을 말한다(Park, 2011). 그리고 우리 조상은 무늬가 너무 튀지 않고 단아한 색 조화를 상하의에 즐겼는데 붉은 저고리에 푸른 치마 같은 상하 대조 배색이 많다. Fig. 1에서 저고리와 치마의 아름다운 배색을 볼 수 있는데 이 고려양은 원나라에서 크게 유행했던 고려의 복식이다.

또한 백의란 스스로 담백한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것, 상백(尙白) 즉 벼슬을 멀리하고 백의를 숭상하는 것을 의미한다(Shim, 2014). 부귀영화나 재물보다는 절개, 의리 등을 숭상하여 은나라가 망하자 벼슬을 마

다하고 고향 고죽국의 수양산에 들어가서 절개를 지킨 백이와 숙제의 고죽국은 후에 고구려가 된다.

색의 사용은 생활이 풍요롭고 안전하고 두루 화평할 때 크게 발전하며 널리 사용하게 된다. 그리스인들은 하늘을 흰색이나 황금색으로 표현했어도 청색으로 표현하는 일은 없었으며 고대인들은 색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고, 중세초기 무렵까지 하양, 검정, 빨강의 3색이 지배적이었다(Pastoureau, 2002). 반면에 고대 이집트 벽화, 미이라 장식과 청금석 등 색을 일찍이 다채롭게 사용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옥과 청동기의 동석병용시대나 청동기 고조선 시대(BC2333)에 색을 다양하게 사용한 것이 나타난다. Fig. 1의 고조선 문화로 분류된 오한기에 위치한 대전자 유적에서 출토된 채색 질그릇에서 보이는 문양들은 흰색, 검정색, 붉은색이며 기하학 문양 특유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Park, 2011). 또 양과 개를 사육하면서부터 백색, 적갈색, 검정색 등 여러 색의 동물 털을 이용하여 색채를 일찍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며 실제 고조선 문화인 성성초 고분에서는 양모와 개털이 혼방된 모직류도 발굴되었는데 이 고조선 모직물은 중국의 것보다 더 섬세하다(Park, 2011).

고구려복식에서 많이 등장하는 기하학 문양의 기원은 청동기시대인 고조선 보다 앞선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빗살무늬나 삼각형무늬는 한반도와 만주지역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 뼈바늘통, 빗살무늬토기, 가락바퀴, 옥기, 장신구 등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우리의 민속복은 천을 몸에 두르는 권의가 아니라 바늘을 사용하여 옷을 봉제해서 입는 재봉의인데 바로 신석기시대 뼈바늘통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이미 이 시대에 바느질이 정교하게 발달하였고 또 깔끔한 습성이 있는 민족이라고 볼 수 있겠다. 빗살무늬나 줄무늬가 변형되어 색동이나 우리의 한복 주름치마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색동은 삼국시대 또



Fig. 1. (a) Goryeo-yeong and (b) Go-Joseon colored clay pot (<https://lno0909.blog.me/80189444871> & <http://jsiks.com/10008353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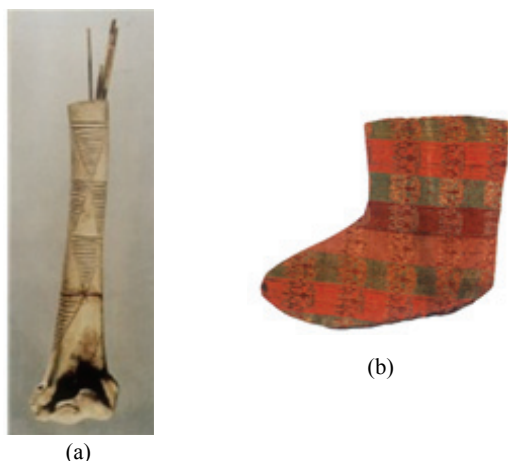


Fig. 2. (a) Bone needle case of stone ages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965205&cid=58106&categoryId=58111>) and (b) Baekje royal socks of Sakdong stripe (皇室의 名宝)

는 가야를 포함한 사국시대(BC 2C~7C)부터, 특히 고구려가 가장 강대할 때 고분벽화시대(4~5C)에 남녀 복식에 색동이 아주 많이 사용되었다(Geum, 1997). 특히 고조선(BC2333~BC108)과 부여의 고대 한반도와 만주일대에 살던 토착민이 금(錦)으로 된 옷을 입었다고 한다. Fig. 2는 백제 왕족의 버전에서 보듯이 금(錦)은 색 줄무늬가 화려하게 들어가고 무늬가 추가된 두꺼운 비단이다. 경사색이 다양하여 줄무늬가 세로로 된 경금(經錦)의 가장 단순한 형태가 색동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색동의 생성은 고조선시대부터라고 볼 수 있겠다. 또 길림소재의 부여와 집안 소재의 고구려 고분에서는 색사로 짠 비단, 화려한 경금 經錦이 출토되었고(Shim & Min, 1994), 가야 옥전고분과 신라 천마총에서 錦이 출토되었다(Park, 2011). 또 고구려는 고조선을 이었고 오색사 경위사를 이중, 삼중 이상으로 사용, 문양을 표현한 중조직 견직물 경금은 고조선의 중심지였던 조양에서 발굴되고 있는데, 색동은 고조선 중기부터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Park, 2011). 고조선 사람들은 각종 옥과 황금 장신구, 청동 단추장식 등을 옷에 많이 붙였는데, 경금 위에다 자수를 놓기도 하여 錦上添花라고 하였다.

“상인들은 물감으로 물들인 오색실로 섞어 짠 견직물 금(錦)에 자수를 놓은 옷~, 부여사람들은 외국에 사신으로 나갈 때면 두텁게 짠 견직물 옷, 물들인 오색실로 짠 견직물에 수놓은 옷, 금은사로 된 견, 푸른 빛의 모직물옷 계(闕-공작류의 푸른 새털로 짠 것이나

양모직물)을 즐겨 입고, 대인은 여우, 너구리, 희거나 검은 담비 가죽으로 만든 옷을 위에다 더 입었으며~”.

색동에 사용되는 색상 간의 배열은 밝고 어둠의 교차배열을 이루어 경쾌한 느낌과 더불어 기쁨의 도래와 복을 기원하고 있다. 또 다채로운 색의 사용을 통하여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 색동은 2색 이상을 이용하였는데 예로부터 우리는 색채를 강조하여 사용하였다(Geum, 1997). 색동은 자투리 천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이은 것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래의 색동은 제작할 때부터 색사를 따로 준비하여 경사로 배열 제작한 세로 줄무늬 원단(경금)이다. 천을 이어붙이는 것은 후대에 와서 잇대기, 누비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는 과거의 풍요로웠던 시절을 그리워하여 없는 살림에서 자투리 원단을 이용, 연결함으로써 경금을 재현하고자 함이다. 잇대기 형태인 조각보는 옷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이유이다. 조각보는 의복보다는 잡화, 생활용품에서 많이 사용되어왔다. 따라서 색동은 원단 자투리 잇대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색사를 사용하여 직조한 경금인 것이다. 색 간격을 동일하도록 경사 배열을 미리 계획하고, 실을 각기 물들여서 수고롭게 배치하여, 규칙적 리듬감을 갖도록 하고 깔끔한 맛이 나도록 하였으며 또 무늬를 삽입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매우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며 정성을 다해야 짤 수 있는 직물이다.

우리의 금(錦)은 다중색 경사의 세로줄무늬가 들어있는 경금으로서 동남 및 중앙아시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다중색 위사의 가로줄 무늬 위금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여기서는 가로방향으로 줄무늬를 이용하고 있으며 줄무늬 간격도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히말라야, 티벳 등의 중국 소수민족들은 세로 줄무늬를 다소 사용하는데 우리처럼 의복에 사용하기보다는 의복의 일부분으로 끝장식이나 디테일 등 부분적 장식으로 조금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이는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색동은 예부터 동북아시아 지역인 한국, 중국 소수민족, 일본의 일부지역, 등에서 보이지만 색채반복에서 나타나는 울동미의 아름다움은 우리나라에서 정착되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Geum, 1997). 또 우리의 한복은 바지와 치마를 풍성하게 하거나 주름치마로서 옷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처럼 우리 고대사회는 매우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회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색동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국시대 고분벽화 여성복식에서는 세로 줄로 동일간격인 색동이나 주름치마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색동은 우리의 고유한 독자적인 줄무늬로 알려져 있고 현 한국적 이미지를 대표하게 되었다.

현재 색동은 한복에서 뿐만 아니라 디자인 소재로도 널리 쓰이고 있는데 이렇게 단아하면서도 조화미가 있는 아름다운 색동을 발명한 우리 조상의 미적 감각 수준은 놀라울 정도이다. 이미 세계에서는 우리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감탄해 마지않고 있으나 유일하게도 한국인만이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색동 연구는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에 국한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고대의 색동에 관련한 연구는 희박한 형편이다. 또 우리의 색동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고찰한 연구가 아직까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대의 색동의 자취를 찾아 어떻게 해서 발생하였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색동의 상징성과 고유한 미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민족의 고유한 가치, 정신적 유산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색동의 기원과 상징성에 대해 조사하고자 색동의 고유성에 착안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을 비롯한 주변과 유적지, 유물, 도서, 문헌 자료, 신문 등에서 가능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색동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었고 우리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관련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고조선 관련 문헌의 고찰과 고구려 고분벽화의 수집을 통해 우리 고대사회에 나타난 모습과 관련된 색동의 사용을 정리, 조사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행하였다. 즉 색동과 의복을 고대사회에서 사용한 예시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고유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선행논문 및 단행본, 학술지 등의 문헌자료, 박물관 자료, 신문과 사진 자료, 인터넷 검색 등을 이용하였다. 또 토기, 금속,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료를 조사하였다. 또한 우리 한복의 원형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는 조선족 자료를 검색하고 색동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수집하였다. 일본의 아스카 문화 및 다카마스층의 고분벽화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일본 고마군과 동대사 등 백제와 고구려 유민의 정착 지역에 남아있는 색동을 살펴보았다. 색동 관련 그림 자료는 총 51점을 분석하였으나 본지 지면상 17점만을 실었다.

3. 연구 결과

3.1. 색동의 기원과 의미에 대한 탐색

3.1.1. 기쁨, 즐거움과 경사, 꽃을 의미

한복은 상하의를 다른 색으로 조합하는 색채 대비 조화와 화사함의 특징 이외에 단아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정리미를 갖는다(Geum, 1997). 특히 색동이 사용된 한복의 경우는 동일한 간격의 색 반복으로부터 절제나 규칙미, 질서 등의 가치도 나타내게 된다. 색동은 우리 조상이 가진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인체와 가까운 의복을 통해 길상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명도와 채도의 대조에 의한 배색, 배열의 조형성, 비대칭적이거나 대칭적인 균형감으로 질서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또 색상의 리듬감을 통해 한국인의 기쁨, 경쾌함과 조화로움의 미의식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적인 심성으로부터 나타나게 된 우아하고 화사한 색채 표현의 대표적인 예가 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민족은 머리에 상투를 하는 유일한 민족이며 항상 모자를 쓰는 예절바른 민족이다. 높은 지위나 장군인 경우에는 특별히 화려한 관모를 착용하였다. 고구려인들은 머리에 조우관을 쓰고 새 깃털을 꽂고 용맹함을 뽐내었는데, 개마총 맨앞서 행진하는 장군의 관모를 보면 관모에 공작새 깃털을 화려하고 길게 꽂은 것을 볼 수 있다.

Fig. 3의 개마총 고분벽화에서 개신장군의 관모를 보면 새 깃털과 꽃을 꽂았는데 바람에 휘날리는 마구의 장식꼬리 깃발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한층 강화시킨다. 중국 소수민족인 장족의 현재 갑옷과 모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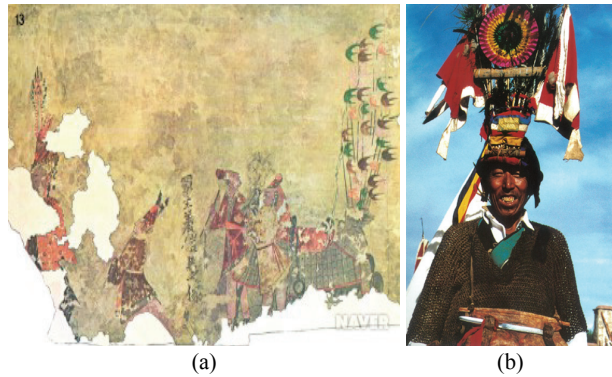


Fig. 3. (a) An official hat of a triumphant general of Goguryeo Gaemachong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8044&cid=42954&categoryId=42954>) and (b) General's Headdress of Tibet tribe (廣西 藏族服飾)

보면 공작새 깃털과 화려한 관모장식, 색동 장식이 보인다. 당나라에 의해 강제로 이주된 고구려유민의 후손이라는 기록을 뒷받침하는데, 관모의 색동이나 깃털과 꽃 장식은 우리 조상들의 미적 취향과 풍성한 감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색동은 화사함이나 기쁨,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꽃을 많이 두어서 경사스런 날에 기쁨을 더하였다.

오래전부터 우리민족은 꽃을 사랑하여 머리에는 꽃이나 새 깃털을 많이 꽂았다. 갓이나 관모에 꽂은 한 송이 꽃은 즐거운 잔치에 소박한 화사함을 더하였다. 특히 국가나 가문에 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남녀불문하고 머리와 모자에 꽃을 꽂았다. 조선시대 남녀 머리에 꽃가지를 하나씩 꽂은 모습을 평생도 민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개인별 주안상에도 꽃병이 하나씩 놓여있다. 또 과거시험에서 장원 급제한 관리도 관모에 긴 꽃가지를 여러 개 꽂는다.

또 공동체 절기인 대보름과 단오를 개인적인 설과 추석보다 더 중요시하여 마을에서 공동 잔치를 크게 벌였는데 이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신앙의 절기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즉 집단주의가 강하고 구성원의 안녕, 화평, 또 사람의 소중함을 뜻하는 홍익인간(배달, 밝달, 밝다 등 모두 같은 소리를 지닌다)을 중시하는 미풍양속을 지니고 있었다. 제천신앙은 중국과 달리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Bae, 2011).

부여에는 12월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여러 날을 두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는데 이를 영고



Fig. 4. The head flower decoration of Cheoyoungmu (Joseon Bonsosayeon-Do)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00294&cid=49323&categoryId=49323>)

(迎鼓)라고 하였다(Chae, 2014). 즉 고구려, 부여, 동예, 삼한 등에서 국중대회(國中大會)를 열고 제천행사를 하고 이후에 가무백희(歌舞百戲)가 연행되었는데 백희란 곡예, 무술, 꼭두각시, 민속극, 씨름, 음악연주, 가요, 무용 등 온갖 놀이를 말한다. 무용에는 독무, 쌍무, 군무, 탈춤, 칼춤, 창춤, 북춤, 및 그 밖의 것이 있으며 힘 있고 격렬한 활동이 많고 대륙 기상이 넘치는 춤이 많았다(Yoon, 2007). 고조선 천로왕(天老王)때 영선(迎仙)악을 연주하고 영선무(迎仙舞)를 상연했으며, 예악(東夷之樂), 지모무(持矛舞)가 있었으며 문화수준이 높았는데, 다양한 악기, 가면과 탈, 사물놀이, 농악 등을 발명하였고 풍류를 즐기고 협동심을 중시하였다. 여기에서 출발한 계, 두레, 품앗이 등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우리만의 공동체 협동 상호 형태이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무궁화 꽃을 찌서 먹었으며 지금까지 진달래꽃을 화전으로 부쳐 먹고 있다. 음식문화만 해도, 잔치상에는 오색으로 꼬치전을 만들고 탕평채, 잡채, 고명 등에도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가도록 고려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색동과 관련이 있겠다.

오래전부터 몽골에서는 우리 고려민족을 ‘술롱고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무지개’라는 몽골어이다. 우리 색동의 아름다운 색채를 무지개의 오색 찬란함으로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며 화사하고 풍요로운 고구려의 문화 생활수준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 우리 한복에서 상 하색의 다채로운 대비 조화를 보고 지은 것이겠다. 다채로운 색의 조합은 주변 생활환경에서 자주 접하는 자연에서 얻은 색상으로서, 경쾌

하고 행복한 색의 조합을 이룬다. 선조들은 자연 친화적인 힘 안에 우주의 삼라만상의 전부를 담아서 작은 우주로 음식과 옷에 담아냈다. 이러한 자연주의가 반영되어 색동 색채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지개를 연상시키는 색의 나열이 구성되었다. 우리 선조는 화려한 것보다는 고우며, 또 복잡한 것보다는 정갈하고 깔끔한 것, 마을이 화목하고 즐거운 것 등을 중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민족은 경사스러운 날에 색동옷을 다 같이 입음으로써 경쾌함과 즐거움, 깔끔함 등을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민족이 가진 독창적인 미의식을 보여준다.

3.1.2. 융합, 조화, 평등을 의미

논어 정의(論語 正義)에 의하면 “동방의 이(夷)는 9종류나 있다. 구이(九夷)란 첫째 현도, 둘째 낙랑, 셋째 고려, 넷째, 만식(滿飾), 다섯째 부여(鳧夷), 여섯째 소가(素家), 일곱째 동도(東屠), 여덟째 왜(倭), 아홉째 천비(天鄙)다.” 구이의 이(夷)는 원래 오랑캐라는 뜻이 없고 동방사람, 뿌리, 평평함, 어짐 등의 좋은 뜻을 지녔는데, 중국과의 경쟁관계에서 오랑캐라는 비천한 뜻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또 고조선 단군이 치리한 9개 동이족(조선, 시라, 고례, 남옥저, 북옥저, 동부여, 북부여, 예, 맥)은(Shim, 2014) 신채호 등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작성한 단군 고조선의 영역 지도에 잘 나타나 있는데, 부여와 조이(鳥夷)와 함께 초록으로, (고)조선은 노랑으로, 백이(白夷)는 흰색으로, 적이(赤夷)는 빨강으로 부족의 영역이 각 색상으로 표시되었다. 과거에는 자기 영역을 색상으로 구별 표시하였고 깃발을 세워서 군사나 백성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는데 활용하였다. 구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조선은 노랑으로 중심에 위치하는데 요서~요동반도~한반도로 퍼져있으므로 그 모양이 양팔 저울과 흡사하다.

호랑이와 곰 위에 새가 날개를 펴고 화합시키고 있는 고조선의 청동장식 Fig. 5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고조선은 조이(鳥夷)족을 중심으로, 곰 토렘부족과 범 토렘부족을 아우르며 함께 발전하였었다. 상고시대 우리민족은 한족, 맥족, 예족으로 구성되는데(Shin, 2014) 단군설화를 바탕으로 환인환웅(태양)의 한(韓)부족, 곰 토렘부족의 맥(貊)부족, 범 토렘부족 예(濊)부족인데, 맥족의 한 부락이 발전하여 예족이 되고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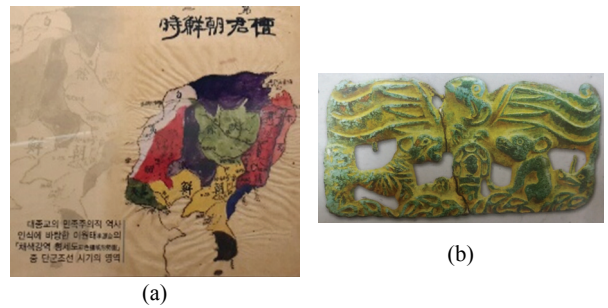


Fig. 5. (a) Nine tribes of Go-Joseon (<http://www.i815.or.kr/kr/>) and (b) Flying Bird covering tiger and bear in Bronze ages (Park, 2011)

다른 한 부락이 발전하여 한족이 된 것으로서, 한족과 예족은 모두 맥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는 원래 우리말 ‘새’의 뜻이고, 새해, 새아침, 새봄 등 ‘새롭다’ 우리말의 줄인 말이다. 맥은 우리말 ‘뱀’의 뜻이며, ‘한’은 우리말 ‘환桓’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한’이라는 뜻은 ‘커다란, 큰’ 으로서 한강, 한시름, 한창, 한길 등에서 그 형태가 남아있다.

단군은 많은 나라들을 다스릴 때 홍익인간 사상을 두루 펼치며 덕치를 했으므로 수많은 주변 부족국인들이 단군에게 와서 스스로 복속하였다. 고조선은 주변 거수국들을 인의덕지(仁義德智)로써 조화롭게 아우르는 포용과 융화를 중시하였으며 이러한 사상은 고구려로 이어졌다. 단군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고조선을 중심으로 주변 변방 소국들을 거느리고 천하를 경영한 고조선 왕국의 제왕이었고 고조선은 여러 제후국을 거느린 대제국이였다(Kim & Lee, 2006). 고조선은 세습보다는 군자가 단군 임금이 되는 전통이 있었고 동이족 거수국들은 제천의례, 경천애인 등을 갖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같은 성씨가 왕이 되는 전통을 갖고 있어 하늘신보다는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동이족들은 자발적으로 고조선 군자국을 받들던 공동체를 구성하였는데 단군과 제천사상으로 인해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해서 하늘의 명령을 순복해야 한다는 홍익인간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홍산문화(紅山文化·BC 4500~3000년) 때부터 제정일치 사회를 열었던 발해문명의 후손, 고조선은 “동이족(東夷族)은 군자의 나라요, 불사의 나라”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왕제(王制)’에 이르기를, ‘동방(東方)을 이(夷)라 한다’고 하였다(Wang, 2012). 이(夷)란 뿌리로서, 이(夷)가 어질어서 생명을 좋아하므로 만물이

땅을 뿌리로 하여 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그래서 군자가 죽지 않는 군자국(君子國)이 있기까지 하다. (중략) 동이는 거의 모두 토착민으로서,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좋아하고, 관(冠)으로는 고깔을 쓰고 비단옷을 입으며, 그릇은 조두(俎豆)를 사용하였으니, 이른바 중국이 예(禮)를 잃으면 사(四夷)에게서 구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고조선의 사람들은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았는데, 해내경과 시경을 보면 고조선 사람은 물가에 살면서 어질고 덕이 있으며 담장이 없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며 죄를 짓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풍속이 순박하고 후덕하여 길 가는 사람은 서로 길을 양보하고 밥 먹는 사람은 서로 밥을 권유하고 남녀가 거처를 달리하여 앉는 자리를 함께 하지 않으니, 동쪽의 예의 바른 군자들의 나라라고 일컬었다. 길 가다가 군자가 호랑이 2마리를 거느리고 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호랑이도 군자에게는 순종하였다.

고조선은 수렵, 농경, 목축의 혼합 생활이었는데 발해만을 중심으로 풍부한 어장도 갖고 있었다. 방어와 연어가 큼직큼직하며 사슴이 우글거리고, 무늬있는 표범, 호랑이, 말곰 등이 많이 있었다. 꼬리가 5자나 되는 공작새도 있었는데 새털로 만든 고급 모직물(타복: 氈服)은 표범이나 호랑이 같은 무늬가 들어있는 문피(文皮)와 함께 발(發)과 조선의 수출품이었다(Park, 2011)

발해만을 중심으로 고조선의 고죽성, 요서성, 조선성 등 모두 요서에 위치한 것으로 증거자료가 최근 발견, 입증되었다. 고조선의 존재 및 동아시아의 시원 등은 조선河, 조선記, 조선城, 조선公, 조선國, 등의 존재가 사고전서에 나오는 것을 통해 입증되었고 현재 북경시 북쪽에 있는 조하(潮河는 북송시대까지 조선 하朝鮮河 였다) 부근 조양에 고조선 초기 수도가 존재하였었다. ‘조양에 도읍을 정하고 요서에서 건국한 전연을 설명하면서 조선이 그 지역에서 건국했었다’라고 두로공신도 비문이 말한다(Shim, 2014). 또 산해경에 나오는 해내경과 대황경은 고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기(記)이며, 조선성(城)이 하북성 진황도시 노룡현에 있었다. ‘평양, 낙랑’이란 말은 각기 ‘서울, (고)조선’이라는 뜻이며 조하(또는 貝水)와 난하가 있는 중국의 백단(白檀)지역은 우리말 ‘밭달’의 한자식 표현이라고 본다(Shim, 2014). 발 조선(發 朝鮮)은 ‘밭

은 아침 해’로서 이 해가 뜨는 바다를 ‘밭해’로 불렀으며 이것이 우리를 ‘밭달’의 민족이라고 부르게 된 근거이다. 조선이란 뜻은 동쪽에 있어 朝日이 鮮明하다는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요서, 요동지역은 하, 은, 주, 춘추 전국시대까지는 단군조선, 기자조선과 고죽국이었으며, 중국 한나라가 차차 강성해지자 고조선의 중앙권력이 약해졌으며 작은 나라들이 각기 분립하였다. 한나라 때는 한사군(BC108)이 있었으며 이후에는 다시 고구려가 회복하였다.

고조선의 8조금법 (BC 10C)을 보면 우리 선조들은 근면성실한 태도를 중시하였고 사유재산제도가 있는 신분 위계가 있는 공정한 법치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고조선은 군자국으로서 여러 제후국을 거느리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공정하게 다스렸으므로 여러 부족의 대표적인 색상들을 균등하게 사용하여 색동 줄무늬로 표현하고 이의 사용을 장려하였던 것은 아닐까? 고조선의 정치이념과 고구려의 평등사상으로서 다민족에 대한 융화 포용정책은 동일한 굵기의 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평등, 화평, 조화를 중시하는 가치관과 정서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다.

3.1.3. 신성, 하늘에 속함, 신비스런 새를 상징

색동은 새의 다양한 깃털색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새의 깃털은 다채로운 색상이 특징인데, 팔색조, 봉황, 주작, 닭, 원앙새 등의 날개와 꼬리 깃털에서 아름다운 색상띠를 볼 수 있다. 동이족 중에서 가장 번영했던 봉황족(조이)은 새를 숭상하였는데, 새는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기마민족 간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티브로 그 시원은 북방유목 민족의 샤머니즘과도 연관된다(Geum, 1997).

Fig. 6 주작벽화를 보면 신령한 봉황의 온 몸에 색동무늬가 있는데, 새는 태양을 상징하고 또는 하늘, 태양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며 영혼불멸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서 용보다 귀한 존재이다. 백제의 금동대향로의 장식을 보면 용보다 봉황이 더 높게 위치한다. 또 나라의 경사 시에는 어디선가 봉황이 날아와 춤을 추었다고 하는데 이에서 기인하는 학춤이 현재까지 전래되고 있다. 또 조선 카펫인 철(綴)에서 보듯이 동일한 간격으로 펼쳐진 깃털이 평행으로 힘있게 짙은 형태가 색동이다(Fig. 6). 또



Fig. 6. (a) Mural Painting of the Goguryeo Ancient (6C),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0026&cid=46670&categoryId=46670>) (b) Saekdoong of Joseon wool carpet (18C, Joseon 纈) and (c) Saekdong wing of bird carrying a boy with flute (<http://cafe.naver.com/somokjangi/1811>)

조선시대 화각장의 전통 무늬를 보면 백호, 빨이 있는 기린 또는 벽사, 사슴, 용, 봉황 등 많은 새가 들어있으며, 학을 타고 날아가는 동자는 피리를 불고 있는데 학의 날개는 색동으로 표현되어 있다.

고조선에는 무늬가 아름다운 표범, 호랑이, 곰, 말곰 등이 많고, 바다에는 반어(班魚-물개나 바닷표범)가 있으며, 또 사슴이 매우 많으며, 특이한 흰노루, 자색노루, 붉은 표범, 흰 호랑이, 꼬리가 5척이나 되는 세미계(細尾雞), 푸른 공작새 등은 신성하다고 여겨졌다(Park, 2011) 고구려 고분벽화의 봉황이나, 주작, 청룡, 황룡, 백호 등에서도 5색 이상의 색동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신도는 4방위 신이자 별자리인데, 그 원형을 조양의 십이대영자 유적지에서 발견된 현무도에서 발견할 수 있어 중국의 사신도보다 이른 시기에 나타났다고 본다. 신성한 동물들은 몸통, 꼬리, 날개 등



Fig. 7. Painting ceramics of Hongshan culture of Gojoseon (<https://blog.naver.com/taojgc/60190134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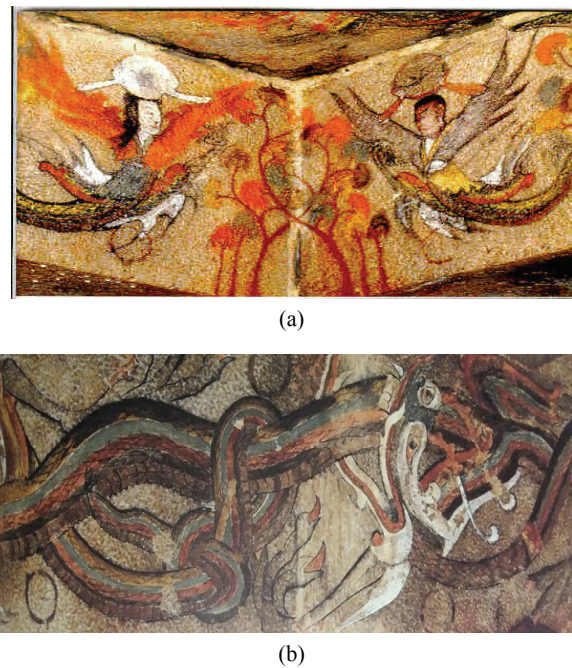


Fig. 8. (a) Family Tomb #5 : The god of the sea and moon and (b) The Saekdong coloring of blue dragon body of Goguryeo (<http://cafe.naver.com/namumog/157>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8670&cid=46660&categoryId=46660>)

이 모두 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료는 광물성으로서 붉은색, 황색, 녹색, 검은색(먹색) 등이 있고 회분을 사용하기도 하고 금박, 은박, 옥상감 등 섬세한 장식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고구려 땅에 있는 수백기의 피라미드 적석총과 120개가 넘는 고분벽화 보물유산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서 모

두 홍산문명과 고조선의 전통을 이은 것이다(Fig. 7).

Fig. 8에서 국내성 집안에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해신, 달신의 구도와 다채로운 색상은 아름답고 우아하며 비늘로 덮인 몸통은 5색의 색동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몸에서 털이 나오고 어깨가 날개로 변하는 모습은 가늘고 긴 유선형의 바람과 흡사하며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은 형상이다. 날개 돌힌 인간의 형상은 비조의 능력을 지닌 선인, 羽人の 원시형으로 간주되는데 새처럼 가볍게 나는 모습, 한낮에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사고는 중국과는 다른 동이족의 독특한 종교 관념이라고 본다(Chung, 2001). 또 청룡의 몸통과 다리 선을 따라서 색동이 그려져 있다(Lee & Shin, 2005). 이처럼 고구려벽화는 힘있고 부드러우며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 잘 짜인 훌륭한 구도 등 잘 조화된 독특한 화풍과 발전 면모를 잘 보여주는데, 대상을 진실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으며 진취적이고 씩씩한 고구려인의 기상을 담은 힘이 느껴진다.

또 산해경은 이른 진(先秦)시대의 사료로서 서주시대(BC12C) 초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는데,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지리서이며 총 18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고대의 지리, 물산, 신화, 무술, 종교, 민속, 민족, 고대역사, 의약 등을 기술하고 있다. 산해경에 포함된 대황경, 해내경 5편은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중원의 역사기록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이는 조선국에 대한 설명으로서 군자국, 백민국, 숙신씨국, 소호국 등을 다루고 있으며 그 전체 내용은 조선인이 조선의 역사를 직접 기록한 조선의 역사, 조선記이다(Shim, 2014). 이곳에 오채조(五彩鳥)가 있는데 皇鳥, 鳳鳥, 鸞鳥 등이었으며 그밖에 黃鳥, 玄鳥 등 다양한 빛깔의 새들(팔색조)이 있었다. 또 산해경 광주(廣注)에 나오는 신화적 동물들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많이 등장하여 人面鳥身, 人面獸身 등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산해경에 등장하는 신화 속의 새(神鳥)는 모두 동이의 영웅으로서 복희는 風신으로서 곧 봉황鳳과 통하는데, 舜(제준) 도 역시 신조 鳳을 의미한다. 새 도테미즘을 강조한 Kaltenmark 교수와 같은 신화학자들 의견은 중국, 일본과 다른 해석으로서 매우 흥미롭다(Chung, 2001). 해신, 달신도 몸에 새 깃털이 나 있고 어깨가 날개로 변해서 구름 속을 다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바퀴신, 대장간 신-풀무불을 지피고

금속을 때리는 신 등 옷이 모두 새깃털 모습으로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거나 갈라져 있다.

선조들의 새 숭배 신앙은 주거 양식에서도 나타난다. 처마는 하늘로 날아가는 새의 뺨은 날개죽지이며, 지붕위 양쪽 끝 치미는 새의 꼬리 형태이다. 기와집 지붕의 완만하고 아름다운 유선형 곡선은 새가 양날개를 핀 곡선과 일치하고 방사상의 방향은 날개 속 깃털이 사방으로 뻗은 모습으로 보인다. 처마 밑은 공작 깃털색과 유사하게 푸른색 바탕으로 다채롭게 채색되어 있고 길다란 날개깃털 줄기대처럼 보인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셈인데 이처럼 고구려 고분벽화의 비조 등에 올라타고 피리를 불며 날아가는 신선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는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의 자연 신선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고조선 민간신앙을 이은 것이며 이는 차후에 도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발해연안, 산동, 황하 하류 등 동이족 주거지에서 뽕나무를 많이 재배하고 가잠이 성행하였으며 금을 비롯한 다양한 견직물은 자수가 추가되거나 금은박을 입어 전세계로 유통되었는데 그 중심지가 바로 발해문명 해안가에 위치한 금주(錦州)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발전한 발해문명 고조선은 제직기술, 염색기술, 장식기술이 고도의 수준이었다(Lee & Kim, 2006). 단군은 황후에게 나라의 잠사업무를 맡겼고 제2대 부루단군은 백성들에게 양잠업을 장려했다고 한다. 고조선 후기인 철기시대(BC 12C)와 최씨낙랑국(BC200) 평양에서 발굴된 견직물 유물을 보면 모두 염색단계를 거친 다양한 조직으로서 여러 색상으로 염색된 것이며 바탕색과 다른 색 문양이 다채롭게 들어간 경금이 많이 존재한다(Park, 2011).

단군이 통치한 9개 동이족의 의생활을 검토해보면, 예에서는 윗옷에 은화를 달았고, 부여에서는 계층의 구분없이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모자를 쓰거나 의복에 청동 장식단추를 장식했다(Shim, 2014). 또 고구려와 옥저에서는 금(錦)으로 만든 의복에 금속으로 장식했다. 마한에서는 구슬을 옷에 장식했는데 금, 보물, 금(錦), 계(闕)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널리 입었다(Park, 2011). 이는 일반인의 의복에도 화려한 장식을 했던 고조선 복식의 특징이다. 또 표범이나 호랑이, 물개 등 무늬가 아름다운 모피가 많이 생산되

었고 외투로 이용하였으며 수출품으로도 유명하였는데 중국이나 북방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귀한 것이었다(Park, 2011). 고조선의 유적인 심양시 정가자와 6512호 무덤과 누상무덤을 보면 묘주의 가슴과 다리부분에서 많은 양의 청동장식 단추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묘주가 청동단추를 단 옷과 신발을 착용했음을 뜻한다. 고조선은 약 BC2333년~108년 한나라에 망하기 까지 약 2200년간, 또 고구려는 약 BC200~668년 약 900년간 지속된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였으며,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나라가 주변에는 없었으므로 (秦-30년, 漢-약450년, 隋-약40년, 唐-약300년 등) 그 문화가 매우 발달하였는데(Shin, 2014), 궁중이나 사대부 뿐만 아니라 서민 복식에서도 원색계열의 다채로운 색을 많이 이용하였다.

3.1.4. 비, 바람 또는 발이랑을 상징

바람은 구름과 비를 몰고 오므로 풍작에 없어서는



(a)



(b)

Fig. 9. (a) Wind pattern on the left side of the sun and (b) wind pattern on the sky of Gakjeochong of Goguryeo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37608&cid=43065&categoryId=43065>)

안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환인이 풍사, 우사, 운사, 뇌사 등 신하를 데리고 온 것에서도 나타난다. 바람, 비, 구름, 천둥은 고대신앙에서 하늘 축복의 개념의 중요한 요소로서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자주 등장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바람과 구름 문양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색동은 우리 선조들이 숭상하던 바람과 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다.

Fig. 9를 보면 오른쪽 날아가는 공작새는 꼬리가 매우 길다란 공작으로 보이며 태양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주변에는 바람과 구름, 파도 같은 형상이 그려져 있다. 특히 왼쪽 위에는 바람을 형상화시킨 듯한 모양이 있고 속에는 평행하게 4-5줄의 줄무늬가 보인다. 또 씨름하는 두 사람 옆에 지팡이를 든 노인이 심판을 보고 있는데 그 사이 공중에는 바람무늬와 유사한 상서로운 문양이 있다. 고구려 벽화에는 이러한 바람처럼 보이는 형상, 줄무늬에 양쪽 끝이 동그랗게 말린 형태가 여백에 매우 많이 나타난다.

한민족의 정신적 뿌리, 원형의식은 바람(風)을 일으키는 기(氣)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은 ‘바람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노래나 시를 훌륭하게 읊을 때 ‘풍월’을 읊는다고 하고 시가에 능하면 ‘풍류’라고도 하며 사람이 생긴 모습이 늠름하면 ‘풍채’라고 한다. 화랑도를 ‘풍월도’라고 불렀고, 지금도 기분이 좋을 때는 ‘신바람이 난다’고 한다. 화랑도 역시 단군정신의 확장이며 하늘의 광명 정대함과 인간세상을 연결하여 잇는 샤만은 제사에 참가한 사람들을 무아지경에 빠지도록 집단적 놀이로 인도했는데 그 핵심이 신명, 신바람이다. 우리 역사가 남긴 동맹, 무천, 영고, 한가위, 팔관회 등은 신바람을 대중적, 집단적으로 표출한 유희였다. 중국문헌에 기록될 정도로 우리겨레는 예로부터 노래와 춤을 즐겼는데 신바람의 원류는 춤에서 연유했다고 볼 수 있다(Bae, 2011).

‘바람의 민족’에서 보듯이 유목민과 달리 기마인은 말을 타고 바람처럼 빨리 달리며 영토를 개척해나가는 강인한 민족이다.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에게 바람은 중대하게 느껴진다. 말을 타면서 뒤로 돌아서 호랑이를 쏘아 잡으며, 말 안장 위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기마민족인 우리는 마상무예를 유산으로 가지고 있다. 고구려인이 세계 최초로 발을 올려놓는 마구 ‘등자’를 발명하였다(Kang, 2015). 선조들의 자긍심과

신비로움이 배어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 신체가 균형감있게 단련된 무사는 소매가 좁은 옷을 입고 빠르게 활을 쏘며 맹수를 쫓는데 우리 활과 속신의 화살은 중국으로 수출 1등급 품목이었다. 또한 말을 탈 때 편리하도록 상하의가 분리된 옷을 입었고, 여성도 치마 속에는 속바지를 꼭 입었으며 이것이 중국 민속복-원피스형-과의 차이점이다. 말 덕분에 고조선의 영역은 생각보다 매우 넓을 수 있었는데, 실크로드의 연장선 동쪽 끝은 바로 조양 지역이며 이곳이 고조선-낙랑이었다. 바다 쪽으로 만리장성의 끝에는 산해관과 발해만이 있는데 일찍이 유목, 농경, 수렵이 모두 가능한 복합사회로서 고도로 발전한 사회였다.

우리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전 세계 고인들의 40%가 한반도에 있고 전남 화순에는 세계 최고의 고인돌(8000년전)이 있다. 또 신석기의 4대 특징인 거석문명, 채도문명, 빗살무늬토기, 세형동기를 모두 보유하는 곳은 한국과 일본뿐이다. 또 적석총, 석관묘, 빗살토기 등의 유물은 중원의 것과 상이하다. 우리의 고유한 빗살무늬 토기는 바람과 비를 무늬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밭이랑을 나타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신석기시대의 예술의 정수로서 빗살무늬토기는 발해문명의 동북아, 한반도 동북부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 고조선시대에 오면서 미송리식 토기와 팽이형 토기로 분화, 고조선 영토를 표시해주고 있어 고조선이 강력한 고대국가였음을 보여준다.

농경문 청동기를 보면 밭을 가는 사람 문양이 있는데 여기에 밭이 10개의 빗살로 표현되었듯이 색동의 줄무늬는 경작한 농경지를 의미한다고도 생각한다. 따라서 수직 평행선인 색동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바람을 의미하거나 이랑이 균일한 경작지를 의미하며 바람과 비를 받아 땅이 제공하는 풍요로움이나 풍작, 결실을 기원,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색동 세로줄무늬의 발생은 즐거움, 기쁨, 경사, 축복, 꽃을 의미하고 부족들의 화평과 평등 조화를 기원하며, 길조의 날개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상징하며, 바람의 민족 등을 표시하며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와 관련이 있고, 비와 바람의 풍작을 기원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

3.2. 조선족과 일본에 남아 있는 우리의 한복과 색동

3.2.1. 중국 조선족에서 보이는 색동

외부와의 교류가 비교적 적은 까닭에 조선족의 전통 복식은 형태의 변형이 비교적 적을 것이고 간접적이거나 옛 고구려인의 의생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서 우리 한복의 원초적 형태를 추측해 보고자 하였다. 유행을 따라 자주 변하는 우리와 달리 조선족의 경우에는 전통 복식의 실루엣, 디테일, 색상, 색동 등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어 우리의 전통적이고 상징적인 아름다움을 아직까지 엿 볼 수 있겠다.

어린이 저고리 소매부분에서 색동이 많이 보이는 것은 동일하였으나, 경사나 축제 때에 색동 띠를 목에 두르고 춤을 추는 것은 특징적이다(Fig. 10). 조선족의 풍부한 민족문화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데 전통복식 문화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복 실루엣은 중국의 것과 다른, 독특하면서도 함축적이며, 내성적이면서도 대범한 복식 문화의 특색을 드러낸다. 연변은 매우 바람이 많은 지역이라 1년에 겨우 1주일정도만 바람이 불지 않는데,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서 조선족 색동을 흔히 볼 수 있다. 설날 같은 명절에는 공적으로 색동을 갖추어 입어 한민족의 공동체적인 색동문화를 보여주는데 색동은 전 국민이 사용한 색채로서 공동체 의식의 공유화 의미를 지니고 있다.



Fig. 10. (a) Children Saekdong (Museum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and (b) Spring Dance by Choonwol village people (2015. 01) of Joseon trib (http://www.997788.com/5797/auction_191_3244772.html)

색동은 상류 계급의 아이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누구나 입었다. 더 나아가서 색동은 경사스런 날에 성인들도 많이 입었다. 이는 근대에 백색이 신분과 계

층의 구별 없이 사용되고 허리끈 줄만 여러 색상을 사용하여 신분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색동도 단순히 한 부류나 계층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사용한 일반적인 색채로서 집단주의를 의미한다(Kim, 2006). 계급 질서를 초월하여 색동이 모든 사람들의 정서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과 색동이 전통적인 향기를 전해 주는 한민족의 대표적인 색 문양이고 색채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Oh, 2008).

오색뿐만 아니라 칠색 무지개 색동이 있는데, 명절이나 축제 혼례식이나 악귀를 제거하고 복을 기원하는 의식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마치 하늘의 무지개처럼 찬란하고 눈부시게 아름답다. 칠색 무지개 색동은 주로 홍색, 주황색, 황색 등 밝은 색채를 사용하고 명절의 분위기를 더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차가운 색의 파란색과 선명한 대조를 형성하도록 한다. 다양한 색상의 융합을 통해 심미적인 느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무지개처럼 막대기 모양으로 색을 조합하여 ‘칠색 복’이라고 부르고 7개 색상으로 견직물로 만들었다. 특히 아동복식에서 자주 사용하는 색동저고리는 조선족의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감정을 동경하는 순수성을 드러내게 된다. 조선족 색동은 요귀를 물리칠 수 있으며 광명의 사자, 아름다움의 화신이라고 삼기 때문에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출발점으로 7색 복은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길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So & Yoon, 2005). 색동의 사용부위는 대체로 팔 부분에 많은데 팔은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자유로운 동작이 가능한 부위이고, 감정의 표현이 얼굴 표정 다음으로 몸짓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활동의 범위가 넓으며 호소력이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곳이다(Choi, 2001). 따라서 시각적 감지가 적극적인 부위인 소매에 색동을 가함으로써 미적 효과를 표현하고 몸체의 곡선을 의식하거나 움직임에 따라 변화되는 의복의 겹침이 적은 팔의 평면적인 면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Kim, 2006). 이렇듯 색동의 개념은 경쾌하고 즐거우며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다. 조선족 전통아동복식의 조형과 조선족 전통 남성복식, 여성복식의 특징은 대체로 동일하다. 조선족 한복의 색동은 우리의 색동보다 색 수가 많으며 더 원색적이고 화사하다.

색동에는 정확하고 엄격한 직선이 수직방향으로 사용되어 고결하고 위엄이 있어 보이면서도 소매에 국한되어 짧은 길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발랄함과 돌발적인 효과로 경쾌한 이미지를 연출하게 된다(Kim, 2012).

3.2.2. 일본에 남아 있는 우리의 색동

색동은 이미 상고시대에 나타났고 동북아시아의 복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중국에서는 당나라의 이현묘 벽화, 집실봉절묘(7-8C)에서 소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다카마스 고분(7-8C)의 고구려 여인 의상, 사찰의 휘장 등 소수 발견할 수 있으나 고구려 수산리, 약수리, 감신총 벽화(4-6C)의 의상, 사신도에서 색동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처럼 동북아 민족 모두가 색동을 사용하였는데 바로 동이족이 색동을 공통적으로 사용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크게 번성하였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은 우리 땅이다. 그러므로 동이족 중심지인 고조선에서 색동 사용을 시작하였고 이것이 타지역으로 점차 퍼져나갔다고 볼 수 있겠다.

강성해진 고구려에 의해 약화된 부여 지배층들은 4C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았으며, 이후 고구려가 망하게 되자 고구려 왕족과 귀족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살게 되는데 그들은 나라현 다카마스 고분벽화에 고구려 여인의 색동치마 모습을 남겼다. 또 현재 그들 후손의 연중행사 잔치에서 색동이 잔존하고 있음을 뚜렷이 볼 수 있다. 다카마스 고분(일본 나라현, 1972, 3 발굴)의 주위에는 아스카시대[飛鳥時代]의 다양한 유적들이 있으므로 이 고분은 백제나 고구려 도래인이 도래하여 만든 유적으로 추정된다. 아스카시대는 약 1300여년(592~710)의 시대인데, 당시 크게 유행했던 아스카 문화는 백제인이 건너가 세운 문화이고, 불교문화에서 비롯된 건축, 회화, 조각 기술 등 대부분을 우리 유민들과 학자, 승려 등이 전수했다.

Fig. 11의 아스카시대 색동치마는 주름치마로서 현재의 한복치마와 매우 유사한 형태이며 잔주름이 잡혀있다. 아스카데라(飛鳥寺) 사찰은 백제의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607년 일본 나라 지역에 백제의 기술자들이 총동원되어 호류지(法隆寺)를 건축하였다(Lee,



Fig. 11. (a) The skirt of the Asuka era (<https://blog.naver.com/azuir/220028804824>) (b) Goguryeo Susan's tomb murals 'Ladies and maidens' (5th century) and (c) Takamasu's noble wives (7th century)

2006). 또 고구려의 유적이거나 유물들이 쉽게 발견되는데, 다카마쓰 고분(高松塚)에서 발견된 벽화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카마쓰 고분의 묘실 벽에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칠해진 벽화는 수산리 고구려 벽화(5C 말) 보다 후대인 7C 말 ~ 8C 초의 고구려 후손의 무덤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원근법과 입체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색동 치마를 입은 여자는 높은 지위를 가진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색동은 경사에 다양한 색사를 사용하여 직조한 경금이다. 그 밑에는 양털로 보이는 끝자락이 보인다. 고구려 여인들의 고상하고 섬세한 우아한 모습이 담겨 있는데 미소를 지은 풍만한 얼굴, 균형잡힌 몸매, 단정한 옷차림과 부드러운 걸음걸이를 섬세한 선들과 아름다운 색으로 잘 묘사하였다. 머리를 모두 틀어 올려 깔끔하게 정리하고 의복은 풍성한 치마와 여러겹 저고리를 입었으며 우아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을 통해서 고구려의 기풍과 자신감, 문화적 우수성이 남아있음을 엿볼 수 있다. 색동에 이용된 색은 오방색 중 검은색을 제외한 청색, 적색, 황색, 백색의 4가지 색이었다.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에서 나타난 색동의 모습과 비교하면 색동이 치마인 점과 동일간격이라는 점은 유사하나 색동의 색을 배열한 순서는 대칭적, 비대칭적으로서 차이가 나며 색동의 굵기가 중간인 것과 조금 넓은 것이 차이가 나며 수산리에서는 아주 섬세한 주름치마도 보인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또 Fig. 12의 일본 동경 근방으로 건너간 고구려 왕

족의 후손인 고마군 사람들의 행사용 복식을 보면 고구려 복식과 매우 유사한데 여성의 치마와 양산에 7색 색동이 많이 보인다. 고마군 여성의 치마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다양한 색 줄무늬 주름치마 색동이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옷감을 매우 풍성하게 사용하고



Fig. 12. The Saekdong color stripe of the 130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Goma of Japan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6&M=04&D=23&ID=2016042300043)



Fig. 13. (a) Saekdong of Tōdai-ji and (b) Insignia of erected events of Seo-Jeongchangwon of Japan (<https://toads.blog.me/220741616449>)

있다. 668년 일본으로 이주한 고구려 유민들은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들기 위해 일본인들에게 그들의 고유한 기술이나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전달해주었다. 이 때 많은 한반도 도래인이 일본에서 높이 등용되어 각 기술 및 예술 분야에서 힘을 발휘하였다. 이 후 반세기가 지나고 716년에 일본 각 7개 지방에 거주하던 1799명의 고구려인이 무사시노 지역으로 이주했는데, 이와 함께 새롭게 고려군이 설치되었다. 이 때 若光은 초대군장으로 부임했는데, 그 지역은 무사시노 지역이라 추정된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若光은 666년 10월 일본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고구려 사절에서 나온 이름 중에 ‘二位玄武若光’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시의 高麗王 若光이라고 판단된다. 고마군을 설치한 若光은 미개발 지역을 개척하는데, 그 지역의 고구려인들을 매우 능숙하게 지휘하였다. 군민들은 그의 덕을 칭송하고, 그의 사후에 高麗郡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그의 영혼을 기리는 의미에서 고마 신사를 창건하였다. 고마군은 그 자체로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과거의 유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1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보존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상당히 많은 교류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다양한 방면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마군 창건 기념행사가 2016년에 진행되었을 때, 마을 주민들이 과거의 복식을 재현한 전통의상을 입고 행사에 참석하였다. 그 의상에서는 색동이 표현되었는데, 이를 통해 옛 고구려의 문화가 여전히 고마군에 남아있고 색동이 아름다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 Fig. 13은 일본 나라시 동대사에서 5색 색동 휘장을 드리운 축제 사진과 나라의 정창원을 그대로 본떠 규슈에서 서정창원을 건립했는데, 6년간 15억엔의 고액을 들여서 새로 지은 서정창원의 완공 축하행사 장면 사진이다. 규슈 미야자키현 산골마을 난고촌에 위치한 백제마을 주민들이 건립한 것으로서 색동 휘장이 늘어뜨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 결론 및 논의

색동은 고조선시대부터 이어 온 우리 고유의 원단이며 색 경사를 사용하여 세로 줄무늬가 나타나도록 평직이나 수자직으로 직조한 견직물이다. 2~7색으로 다양하게 천연염색한 실을 사용하면서 무늬를 넣어 직조하던 경금이 단순화된 것이다. 줄무늬는 선사시대부터 존재하였던 가장 단순한 무늬이지만 세로줄 동일 간격의 색동은 특별히 우리 선조가 가장 즐겨 사용해온 것으로서 민족 고유의 정서가 반영되어 타민족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낸다. 한국의 대표적인 무늬이자 고유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색동이 들어있는 고분 벽화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고대에 우리 조상들에게 색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색동은 여러 색상의 실을 경사방향으로 동일 간격으로 계획, 배치한 후 위사를 투입시켜 제작한 경금직물이 단순하게 변형된 것이다. 밝고 어두운 또는 채도 차이가 큰 색들을 규칙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쾌하고 화사한 느낌을 주는데 밝은 면을 강조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생활상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들어 있다. 경사, 즐거움, 기쁨을 표현하였으며 좋은 일이 반복되고 지속되길 기원하는 마음이 가시화 된 것이다. 또 우리조상은 군자국으로서 여러 부족을 융합하고 덕으로 다스렸는데, 일찍이 법을 만들어 악은 징벌하였고 근면성실함을 권장하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하늘 뜻을 따르는 경천애인, 홍익인간을 중시하여 이를 통한 평등, 조화, 질서 중시사상은 우리민족의 가치관 및 정서를 이루게 되었다. 평등, 질서, 조화는 균일한 간격으로 색동을 만들었으며 우리 민족 복식에 자주 등장함으로써 독자적인 한국적인 감성을, 즉 화려하지 않으나 고운 심성을, 사치스럽지 않으나 단아한 아름다움과 질서, 평등, 조화를 상징한다.

우리 선조들은 하늘과의 연락책인 새, 삼족오 등 동물과 풍작을 가능케 하는 바람, 비, 구름 등을 숭상하였는데 이들을 조형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늘과 연결되는 수직선으로서 빗살이나 세로줄 무늬가 가능하겠다. 새의 양 날개를 펼친 모습이나 평행의 날개 깃털들, 비, 바람이 부는 모습은 모두 수직선이나 사선이며 논이나 밭이랑의 규칙적인 평행선들도 직선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동이족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했던 鳥夷는 바람의 민족이라고도 부르는데, 봉황을 바람(風) 신으로 생각했고 바람 신은 하늘의 상제의 사신이며, 풍(風)은 봉(鳳)과 서로 통한다. 또 고려, 몽골에서는 말, 사람, 새가 동심체인 풍습이 있는데 바람과 새들의 집합체인 색동은 많은 색과 선들의 모임이므로 풍요이자 생명이며, 하늘, 바람이자 신령함이라고 볼 수 있겠다.

조선족은 옛 고구려영토에 살고 있고 또 외부와의 교류나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편이므로 색동을 우리보다 더 빈번히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마을 잔치에는 다같이 춤을 추는데 색동 띠를 어깨에 길게 늘어트리고 경사의 즐거운 분위기를 나타내면서 공동체의 유대감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색동은 조선족의 생활 속에 뿌리 깊게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계 일본 고분벽화, 고마군 축제 현장, 사찰의 기념행사 등에서도 간혹 발견되고 있었다.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염직, 악기, 등 우리의 선진 문화 기술들을 전승하였기에 기념 행사장면에 여전히 등장하는 것이다. 고조선 시기에 시작된 색동은 고구려 복식에서 많이 나타났고 주름치마에서 나타난 색동의 조형적인 특징은 일본 나라현 다카마쓰 총의 고구려 여인의 색동 치마에서 재확인되었다. 또 고구려의 유민이 일본으로 건너간 고마군의 창립 기념 행사에 나타난 색동과 동대사, 규슈 서정창원 등의 기념행사 색동 휘장 등도 살펴보았다. 이들이 조상의 이념과 발자취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재현한 과거 복식과 색동을 통해 우리 고구려, 백제의 색동과 한복의 찬란함과 자긍심을 엿볼 수 있었다.

REFERENCES

- Bae, Y. K. (2011). *Korean culture and society education*. Paju: Korea Science Information Publishing.
- Chae, H. W. (2014). The world of aesthetics and the transmission of Korean dance. *Korea Esthetics*, 13(1), 167-219.
- Choi, Y. J. (2001). *An aesthetic study on Saekdong in Korean costu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Chung, J. S. (2001). Relations of 'Shan Hai Jing' myth and immortal tal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10, 33-46.
- Covell, J. E. H. C., & Covell, A. C. (1984). *Korean impact on Japanese culture: Japan's hidden history*. Elizabeth, NJ: Hollym International Corporation.
- Kyungwoon Museum. (2016). *Do you know Joseon Cheol? Joseon carpet 'Cheol' transferred to Japan*. Seoul: Author.
- Geum, K. S. (1997). *Korean traditional costume art*. Paju: Youlhwadang Publishers.
- Kang, I. W. (2015). *Eurasian history travel*. Seoul: Minumsa.
- Kim, H. S. (2012). A comparative study on the rhythmic characteristics of stripes of Korean and Japanese folk costumes.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2(2), 59-82.
- Kim, J. H. (2006). *(A) study on the plasticity of Saekdong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Kim, M. S. (2006). *Adoption of the Saekdong to the catholic chasuble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Bucheon.
- Lee, D. I., & B. K. Kim. (2006). *Gojoseon was the ruler of the continent*. Seoul: Sejong Publishing.
- Lee, J. Y. (2006). The costumes of Asuka-Nara period of Japan based on the clothing law - Focusing on the ruling classe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8(5), 523-529.
- Lee, Y. H., & Shin, K. S. (2005). *Rediscovery of Korean beauty*. Seoul: Solbook.
- Oh, I. S. (2008). *A study on modern Korean painting focused on Saekdo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 Park, S. H. (2011). *The discovery of Gojoseon costume culture*. Paju: Jisik-sanup Publishing.
- Pastoureau, M. (2002). *Blue: the history of a color*, Paju: Hangilart.
- Shim, B. K. (2014). *Lost ancient history of Korea, recovered Gojoseon*. Seoul: Barunhistory.
- Shin, C. H. (2014). *Choseonsangosa*. Seoul: Sejong Publishing.

- Sim, Y. O., & Min, G. Z. (1994). A study on the textiles of the age of Gojoseon, Booyeo and Goguryeo which were excavated in the east and north area of China.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s*, 22, 61-70.
- So, H. M., & Yoon, K. (2005). *Research on color education*. Seoul: Yonyoung Art Publishers.
- Wang, X. D. (2012). Customs of tattoo in China. *Asian Culture Studies*, 27, 27-62.
- Yoon, J. W. (2007). The study on the origin and transition of sword dancing costum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7(7), 84-97.
- 安旭, 李泳 編著, 西藏藏族服飾 *Tibetan costume and ornaments*, 五洲傳播出版社, 2001, 北京
- 週刊朝日百科, 皇室의 名宝, 05/16, 04 正倉院 染織, 朝日新聞社, 1999. 東京.

원고접수: 2018.02.06

수정접수: 2018.02.26

게재확정: 2018.02.27